

2006. 9

September

| 광 | 학 | 단 | 신 |

### 한국광학기기협회 소식

#### 'InterOpto 2006' 참관 및 일본기술연수 실시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해마다 핵심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2006 한·일 광학산업 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InterOpto 2006' 참관을 비롯한 일본 광학업체 방문 및 광기술연수를 지난 7월과 8월중에 실시했다.

한국광학기기협회 이택희 부회장과 이상현 과장 외에 광학업체에서 14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7월 11일 광학 및 특수용도 글라스를 생산하고 있는 일본 오히라 광학 주식회사 견학 연수를 시작으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도쿄 지바현에 있는 마쿠하리메세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일본 최대 규모의 광통신 전시회 'InterOpto 2006'을 관람하며 최신 광산업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시기간동안 광기술세미나도 열려 기술연수 참가자들에게는 광기술의 발전현황을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고 최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전시회가 열리는 기간 중에 한국광학기기협회 이택희 부회장과 이상현 과장은 일본광산업기술진흥협회(OITDA), 일본옵토메카트로닉스협회(JOEM), 일본비즈니스정보시스템산업협회(JBMIA), 일본카메라영상기기공업협회(CIPA), 일본갈라라보협회(JCFA), 일본사진영상용품공업회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상호 단체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8월 6일부터 11일까지 5박 6일간에 걸쳐 일본 센다이 동북대학 및 니콘 공장을 방문하고 최신 광학기술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한국광학기기협회 이상현 과장과 산업기술대학교 조연정 교수를 비롯하여 광학산업계에서 총 16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센다이 동북대학 나노가공실에서 「차세대 초정밀 광학부품 나노가공」에 대한 기술연수를 받았다. 이어서 8월 10일 연수단은 영상사

업, 산업기기사업, 반도체·액정노광장치 연관기기, 외판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 일본 니콘 주식회사를 찾았으며, 회사 관계자로부터 공장 견학후 공장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 오히라광학 주식회사 공장을 견학하며 현지 실무자로부터 공장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연수단



▶일본 니콘 주식회사 공장견학을 마치고 공장건물 앞에서 연수단이 포즈를 취했다.

#### 복사기업체 실무자 협의회 개최

2006년 제 5차 복사기업체 실무자 협의회가 지난 7월 2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김승진 자문위원, 한국광학기기협회의 박홍재 과장,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의 박재형 차장과 박종수 대리, 업계에서는 한국후지제록스의 최재봉 과장,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의 이창주 부장과 천대은 대리, 태흥아이에스의 엄석용 과장 등이 참석하여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중고복사기 유통과 관련하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불법수입중고복사기에 맞춰졌다.

국내에 불법으로 수입되어 유통되는 중고복사기가 늘어나면서 시장질서 혼란과 소비자 안전사고가 야기되면서 지난해 한국광학기기협회와 복사기업체들은 지속적인 정부 건의에 나섰고, 그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의 핵심내용은 수입 복사기에 대해 안전검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초 의도와는 달리 여전히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중고복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현재 관련 기관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취득한 중고복사기가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확한 수입량과 유통량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나아가 불법 중고기에 대한 단속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현재 각종 불법 사례는 많으나 증거수집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수입 중고복사기를 판매하는 지방의 대리점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도 없어 각 기관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업계는 한국광학기기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서 산업자원부에 기업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업계와 관련 기관이 공동 대응해 나가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불법사례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 요청하고 업계에서도 각종 불법사례를 발견할 시에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로 정보를 전달하기로 했다.

**광학신상품**

**삼성전자(주), 초고속 흑백 레이저 프린터 'ML-4550시리즈' 출시**

삼성전자(대표·윤종용)가 분당 최대 43장 출력이 가능한 초고속 흑백 레이저 프린터 'ML-4550시리즈'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최대 1200dpi급 고해상도 출력이 가능한 이 제품은 2만장까지 출력할 수 있는 토너를 지원하고 최대 2100장까지 대용량 급지가 가능해 대기업과 관공서와 같이 출력량이 많은 대규모 사무실에 적합하다. 최대 512MB까지 확장이 가능한 DDR 메모리(기본 128MB)를 탑재하고 삼성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싱크스루'를 지원해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기업용 프린터 출시를 기념해 기업 고객을 위해 3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한 후 만족하였을 경우 특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삼성전자의 초고속 흑백 레이저 프린터 'ML-4550시리즈'

**삼성테크윈(주), 고감도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 '케녹스 X70' 출시**

삼성테크윈(대표·이중구)은 감도(ISO) 800을 지원하는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 '케녹스 X7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710만 화소의 신제품은 터치 센서와 버튼이 결합한 독특한 유저인터페이스를 갖췄으며 소프트웨어식 손떨림방지 기술(ASR)



▶삼성테크윈에서 선보인 고감도 디카 '케녹스 X70'

을 채택해 어두운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2.5인치 LCD로 찍은 사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부 조도에 따라 LCD 휘도가 자동 조정돼 배터리를 절약하는 특징이 있다.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포토 프린터·복합기 5종 출시**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대표·김대근)이 포토 프린터와 복합기 5개 모델을 선보였다. 이들 제품은 1조분의 2리터 초미립 잉크 방울을 사용해 뛰어난 품질의 사진 출력이 가능하다. 출력 속도를 좌우하는 헤드의 노즐 수를 늘려 동급 대비 최고 출력 속도를 구현하고 캐논의 사진 보존 기술 시스템으로 100년 동안 원본처럼 사진을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포토 프린터 '픽스마 iP1300'은 70초 만에 4×6인치 출력이 가능하고 분당 흑백 19매, 컬러 16매의 출력 속도를 지원해 빠른 속도를 원하는 소비자를 겨냥한 보급형 제품이다. 복합기 픽스마 'MP160·180·460'은 카메라에서 PC 없이 직접 출력하고 픽트 브릿지를 장착해 카메라 마니아에게 적합하다.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이 선보인 포토프린터 '픽스마 iP1300'

**한국후지필름(주), 이색 카메라 2종 출시**

한국후지필름(대표·유창호)은 두께가 17mm인 슬림형 디지털 카메라 '파인픽스 Z3'와 수심 10m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일회용 카메라 '퀵스냅 마린'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슬림형 몸체와 핑크, 블루 등 감각적인 컬러가 돋보이는 '파인'

픽스 Z3'은 여성 소비자를 위해 디자인된 제품으로 이미 일본에서 출시 2주만에 단일제품으로 시장점유율 6%를 차지할 만큼 인기를 얻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이 제품은 어두운 곳에서 촬영이 용이하도록 감도(ISO) 1600을 지원하며 피사체의 거리에 따라 자동으로 광량과 감도를 조절해주는 인텔리전트 플래시를 탑재했다. 아크릴 LCD에 비해 35배나 흡입에 강한 강화유리 LCD가 적용됐다. 필름 카메라인 '퀵스냅 마린'은 강, 호수 뿐만 아니라 바다 속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제품으로 감도(ISO)를 800까지 지원해 빛이 적은 수중에서도 촬영이 용이하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한국후지필름에서 선보인 슬림형 디카 '파인픽스 Z3'

**한국코닥(주), 하이엔드급 디카 '이지쉐어 P712' 출시**

한국코닥(대표·김군호)이 700만 화소에 광학 12줌, 손떨림 보정 등 전문가급 촬영 기능을 지원하는 하이엔드급 디지털 카메라인 '이지쉐어 P712'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DSLR에서 불가능한 동영상 촬영을 캠코더급의 우수한 화질로 촬영



▶전문가급의 사진촬영이 가능한 한국코닥의 신제품 '이지쉐어 P712'

영이 가능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도 놓치지 않는 민첩한 촬영 시스템이 특징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1010만 화소 DSLR 카메라 'EOS 400D' 출시**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대표·강동환)은 디지털 일안 반사식(DSLR) 카메라 'EOS400D'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1010만 화소를 지원하는 신제품은 기존 7개이던 자동초점(AF) 측거점이 9개로 늘어나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초기 기동 시간이 0.2초에 불과하고 초당 3 프레임, 최대 27 프레임을 연속 촬영할 수 있다.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에서 선보인 DSLR 카메라 'EOS 400D'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국내 프로젝터 시장 진출**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대표·강동환)은 프리미엄 프로젝터 '파워 프로젝터 엑시드(XEED)'를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LCD와 DLP 장점을 결합한 '엘코스(LCOS)' 기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의 프리미엄 프로젝터 '파워 프로젝터 엑시드(XEED)'

술과 캐논 독자 광학시스템 '아이시스(AISYS)'를 결합한 프리미엄 모델이다.

**회원사 동정**

**신규회원 가입-정회원(2개 사)**

**삼원정공(주)**

- 대표 : 문학무
- TEL : (02)463-7781
- FAX : (02)462-1654
-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309-136
- 홈페이지 : www.swspring.co.kr
- 주요 품목 : 스프링

**유성정밀(주)**

- 대표 : 김정기
- TEL : (055)250-6784
- FAX : (055)250-6700
- 주소 : 경남 창원시 팔용동 41-2번지
- 홈페이지 : www.yoo-sung.com
- 주요 품목 : 폰 카메라 렌즈 Aass'y

**신규회원 가입-특별회원(2개 사)**

**(주)니콘인스트루먼트코리아**

- 대표 : 김정섭
- TEL : (02)2186-8400
- FAX : (02)555-4415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96-16 육인빌딩 1층
- 홈페이지 : www.nikon-inst.co.kr
- 주요 품목 : 현미경, 측정기

**이호전자**

- 대표 : 배창호
- TEL : (053)521-7114
- FAX : (053)521-7447
- 주소 : 대구시 서구 내당동 885-27번지
- 주요 품목 : 전자·전기기기



**하이셀(주), 상반기 매출 122억원 · 영업이익 2억원 기록, 흑자전환**

하이셀(대표 · 송승훈)이 상반기 매출 122억 원, 영업이익 2억 1000만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매출은 전기 대비 5%,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하이셀측은 2005년 10월 엔투에이와의 합병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수익성 악화의 주요인이던 한계사업을 정리하고 흑자 사업 위주의 사업부 재편을 통해 내부 효율 및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2분기 흑자전환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훈 사장은 “상반기 국내 LCD · 휴대폰 산업의 극심한 침체 속에서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며 “3분기부터 LCD 광학시트 부문과 이미지센서 등 휴대폰 부문의 주문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주)디오스텍, 용인에 제2공장 준공**

디오스텍(대표 · 한부영)이 지난 8월 월 250만 개의 휴대폰 카메라용 렌즈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제2 공장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오스텍은 렌즈 모듈 생산량이 기존 월 100만 개에서 350만 개로 증가, 하반기 예상되는 수주 물량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적정 이익률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제2 공장 증설로 품질관리가 용이해지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생산에 탄력을 받는 데다 외주 처리 비용도 줄어들게 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제2 공장에는 50억 원이 투자됐으며 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월 250만 개의 렌즈 모듈 생산 능력을 갖춘 디오스텍 제2공장 전경

생산 및 양산 테스트를 마치고 국내외 카메라모듈 업체에 VGA 및 메가급 렌즈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한부영 사장은 “2메가급 신규 제품 생산 안정화로 이익률이 적정 수준을 회복했다”며 “국내 휴대폰 산업이 위기라는 우려가 있지만 디오스텍의 수주 물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주)디지털옵틱, 사업장 이전 및 연락처 변경**

디지털옵틱(대표 · 채찬영)이 사세확장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이전했다. 이전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3-14 시콕스타워 204호이고 전화는 (031)777-9861, 팩스는 (031)777-9864이다.

**삼성전기(주), 카메라모듈 · PCB · MLCC 등 경쟁력 강화로 2분기 영업이익 257억원, 16.8% 증가**

삼성전기(대표 · 강호문)는 지난 7월 21일 기준으로 매출 7502억 원, 영업이익 257억 원, 순이익 190억 원을 골자로 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분기에 비해 매출은 2.9%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6.8% 증가한 수치다. 또 2분기 연속 순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됐다.

삼성전기는 환율 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 전반적인 IT 경기가 침체됐지만 PCB · MLCC · 카메라모듈의 3대 핵심 제품 경쟁력 강화로 흑자기조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삼성전기는 올해 상반기에 1조 5229억 원 매출과 47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작년 상반기에 비해 매출은 10.9%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2분기 실적을 사업부문별로 보면 PCB 사업은 반도체용 제품 수요가 크게 늘고 일부 고부가 제품 판매가가 상승했지만 휴대폰용 제품이 부진해 전분기(2740억 원)보다 다소 하락한 268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칩부품 사업은 대용량 MLCC의 판매가 증가해 1분기보다 4.6% 증가한 114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광 사업은 휴대폰용 LED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27% 성장했다.

삼성전기는 “올 하반기에는 제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매출과 손익을 지속적으로 확대, 전 사업부문에서 흑자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라며 “차별화된 제품 출시로 시장을 선점하고 LED 백라이트유닛 등 신규사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테크윈(주), 블루NV10, ELSI 최우수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로 선정**

삼성테크윈(대표 · 이중구)은 지난 7월 출시한 ‘블루 NV10’이 유럽영상음향협회(EISA)로부터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 부문 최고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1994년과 1996년, 1999년에는 필름 카메라로 상을 받은바 있는 삼성테크윈이 2000년 디지털 카메라 사업을 본격화한 이후 EISA로부터 받은 최초의 상이다.

1982년 6월, 유럽 20개 국 50여 종류의 주요 카메라 및 사진 영상 전문지 편집자들이 모여 만든 EISA는 매년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거쳐 오디오, 비디오, 홈시어터, 카메라, 핸드폰 5개 부문에서 최고의 제품을 선정하는데 카메라 부문은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NV10은 삼성테크윈의 프리미엄 브랜드 블루 NV시리즈중 하나로, 손끝 터치만으로 기능을 제어하는 ‘스마트 터치’ 기능을 갖췄다. 또 세계 두 번째로 개발된 1010만 화소 카메라로 손떨림 보정(ASR) 기능도 내장하고 있다.



▶삼성테크윈의 블루 NV10

**세원크린텍, 사업장 이전 및 연락처 변경**

클린룸 시공 및 클린 장비 제작업체인 세원크린텍(대표 · 박영민)가 사세확장과 함께 사업장을 이전했다. 새로운 사업장의 주소는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90-4번지이며 전화는 (032)522-2427, 팩스는 (032)522-6124이다.

**(주)아이비전, 수원시 영통구로 사업장 이전 및 연락처 변경**

아이비전(대표 · 박운수)이 사세 확장과 함께 사업장을 기존의 경기도 용인시에서 지난 8월 25일 수원시 영통구로 이전했다. 새로 바뀐 주소는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3 디지털엠피아이 C동 901호이며 전화는 (031)303-5770~3, 팩스는 (031)303-5774이다.

**MF전광(주), 합병 통해 (주)위오로 거듭나**

MF전광(대표 · 서동수)이 지난 7월 1일자로 합병을 통해 (주)위오로 거듭났다. (주)위오의 대표이사는 서동수 사장이 계속 맡게 됐으며 주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325-30 2층이다. 바뀐 전화는 (031)427-5771~3, 팩스는 (031)427-5774이며, 새로운 홈페이지 주소는 www.weeo.co.kr이다

**(주)이즈미디어, 사업장 이전 및 연락처 변경**

이즈미디어(대표 · 홍성철)가 사세확장과 연구인원 충원에 따라 지난 8월 11일 사업장을 이전했다. 새로운 사업장 주소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6번지 한림벤처타운 406호이며, 전화는 (031)427-8411, 팩스는 (031)427-8414이다.

**재영솔루텍(주), 비구면 유리렌즈 시장 본격 진출**

재영솔루텍(대표 · 김학권)이 나노광학사업 부문을 신설, 일본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비구면 유리 렌즈 시장에 출시표를 던졌다.

비구면 유리 렌즈는 휴대폰용 카메라모듈이나 디지털카메라, 광저장장치 등에 사용되는 렌즈의 일종으로 플라스틱 렌

즈에 비해 좋은 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2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모듈에서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추세다.

현재 비구면 유리 렌즈 국내 시장은 월 200만개 규모인데 카메라폰의 고화소 경향에 따라 수요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 시장은 대부분 일본 호야가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영솔루텍은 약 100억 원을 투자, 인천 송도 신도시에 비구면 유리 렌즈 생산 공장을 만들었다.

이 공장은 비구면 유리 렌즈의 광학 설계에서 금형 설계 및 제작, 렌즈 성형에 이르는 일괄 생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생산량은 월 80만 개 정도인데 재영솔루텍은 올해 말까지 이를 160만 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내년에는 300만 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재영솔루텍은 비구면 유리 렌즈를 이용해 두께 4.3mm인 200만 화소 렌즈모듈을 개발했다.

김학권 사장은 “이 제품을 쓰면 두께 5mm 이하의 카메라모듈을 만들 수 있다”며 “플라스틱이 아닌 비구면 유리 렌즈를 사용했기 때문에 영상 품질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한국후지제록스(주)**

**한국파일네트와 기업 콘텐츠 관리 및 업무 프로세스 관리에 관한 MOU 체결**

한국후지제록스(대표 · 정광은)는 지난 7월 26일 한국파일네트(대표 · 신대준)와 기업콘텐츠관리(ECM)와 업무프로세스 관리(BPM) 솔루션 공급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로 후지제록스 제품에 파일네

트의 솔루션이 탑재되는 것은 물론, 양사가 공동으로 영업 및 마케팅을 진행하고 기술교류 부문에서도 서로 협력한다.

이들 솔루션은 기업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고 외부 콘텐츠 · 프로세스와 연동해 업무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시스템으로, 두회사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후지제록스 복합기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손문생 한국후지제록스 사장은 “이번 제휴는 사무환경 관련 종합솔루션 기업으로의 변신을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솔루션 사업영역 확대에 시장개척에 힘쓰는 한편 궁극적으로 기업의 업무 효율성 극대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한광, 독자모델 레이저 가공기 수출**

한광(대표 · 계명재)은 사업 매출을 내수 위주에서 수출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해외 판매망을 4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광은 레이저를 이용해 금속 및 비금속 재료를 잘라내는 비접촉 가공 시스템 전문기업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50%, 연매출 377억 원(2005년)의 국내 1위 기업이다.

한광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재탄생하기 위해 스위스 수입 제품의 판매 대행을 중단하고 보급형, 고급형 자체 모델(FC시리즈, FL시리즈) 레이저 가공기를 개발해 수출 시장에 나서기로 했다.

고급형 모델인 FL시리즈는 축 이송속도가 최대 분당 150미터, 동시축 이송속도가 분당 192미터, 가속도가 1.5G(9.8ms/sec제곱)까지로 고속 가공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한국파일네트 신대준 사장과 MOU를 체결한 한국후지제록스의 손문생 사장(사진 오른쪽)



▶한광이 수출용으로 내놓은 고속 레이저가공기(모델명: FL3015)

회사 측은 수출 확대를 위해 전세계 100여 곳의 판매망을 갖춘 위아와 ODM 판매 계약을 체결,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럽과 남미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156억 원, 수주량과 수주잔량은 각각 210억 원, 90억 원으로 국내 수주와 매출에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6.7%, 13.0% 증가한 실적을 내놓았으며 수출액도 전년 동기대비 두배 가량 늘어난 38억원을 기록했다.

한진규 전무는 “전세계 레이저 가공기기 시장의 확대와 독자 신제품 개발로 올해 매출 400억원 달성을 낙관하고 있으며 위아를 통한 매출 40억원을 포함할 경우 44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레이저 가공 시스템 산업은 국내 시장 약 600억 원, 세계 시장 약 60억 달러 규모로 제조 기술이 접착식에서 비접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연간 2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 중이다.

## 광학 인포메이션

**복사기, 일회용카메라 등 중고제품 안심하고 쓸 수 있다**

**-기술표준원, 재제조 제품 활용과 인증절차 등에 대해 자체 시범사업 진행-**

신제품과 거의 동일한 품질의 중고제품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내년 1월부터 우수 재제조 제품에 대해 ‘우수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서’를 부여해 소비자가 재생 제품 선택시 갖게 되는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이를 위해 연말까지 교류발전기와 시동전동기를 대상으로 재제조 제품의 활용과 인증 절차 등에 대해 자체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재제조는 사용한 제품을 회수해 분해·세척·검사·부품교체 및 조정·재조립

등을 거쳐 신제품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재상품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제조 제품은 에너지 및 자원절감 효과가 커 세계적으로 자동차부품(교류발전기·시동전동기 등)·복사기·인쇄기·일회용카메라 등 50여 개 품목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품질 불량으로 반품률이 20~30%에 이르는 등 신뢰도가 매우 낮은 편이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7만 3000여 재제조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530억 달러에 달하고 유명 자동차 제조업체 대부분이 재제조 라인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표준원은 시장 규모(약 22%)가 가장 큰 교류발전기와 시동전동기에 대해 시범 품질인증을 실시하면서 재제조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에 따르면 “인증체계를 갖추고 여러 혜택을 부여해 현재 3200억 원대로 추정되는 재제조 시장 규모를 1조 2000억 원대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광학뉴스라인

본 란에는 ‘광학세계’ 편집부에서 직접 취재한 일부 기사와 함께 일간지, 잡지, 인터넷 등에 올라 있는 기사 중에 광학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서 게재하고 있으며, 날짜와 출처는 밝히지 않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광학세계’ 편집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 상반기 디카 트렌드는 ‘고감도’와 ‘슬림화’

디지털카메라 전문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가 사이트 방문객 776명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디카 트렌트’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8.5%인 376명이 고감도를 지목했다. 이밖에 슬림형 디자인이 247명으로 전체의 31.8%, 화소 8.8%(68명), 컨버전스 6.2%(48명), 방수기능 4.8%(37명) 순으로 나타났

다. 실제 올 상반기 후지필름, 올림푸스, 소니, 삼성테크윈이 ISO 1000 이상을 지원하는 고감도 카메라를 앞다퉀 출시하며 바람몰이에 나섰다.

### 올가을 보급형 DSLR 시장이 뜨겁다

확대일로인 보급형 DSLR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카메라 업체간의 불꽃튀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가을 ‘보급형 DSLR 대전’의 신호탄은 후발주자인 소니가 쏘았다. 지난 7월 소니는 코니카미놀타의 DSLR 부분을 인수한 후 첫 제품인 ‘알파 100’을 내놓았다. DSLR에 필수적인 다양한 교환렌즈군 발표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니콘도 기존 ‘D70’과 ‘D70S’를 2년여 만에 완전히 업그레이드한 ‘D80’을 내놓아 니콘 유저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DSLR 시장 1위업체 캐논도 베스트셀러 ‘EOS 350D’의 후속작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국내 디카 시장 점유율 1위 삼성테크윈도 펜탁스와 공동 개발한 제품을 9월 이후 출시할 예정이다.

### 사무업계 화두는 “출력비용 낮추기”

사무환경이 출력비용 낮추기에 골몰하고 있다. 복사물을 많이 취급하는 대기업·금융사·보험사 등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출력 사무장비의 실태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이미 일부 업체는 프린팅 환경을 ‘180도’ 바꿔 적잖은 효과를 보고 있다. 프린터와 복합기 업체도 단순 하드웨어 판매가 아닌 ‘총소유비용(TCO)’을 기반으로 수요에 대응하는 등 영업 방식의 변화를 모색 중이다. 수요와 공급의 요구가 맞아떨어지면서 사무장비의 구매 형태도 ‘하드웨어 가격’보다는 ‘출력 비용’이 최우선 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윤상태 렉스마크코리아 사장은 “은행과 보험사는 대출 신청서와 같은 각종 서류 작성에서 승인과 문서 보관까지 실재 없이 문서 출력이 이뤄져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한 해 매출 중 최고 5%, 직원당 연간 문서 비용도 최고 150만원에 이른다”며 “경기 하강으로 비용 절감이 기업

경영전략의 하나로 떠오르면서 효율적인 사무장비의 구축 방법에 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요처의 요구가 비용 절감 위주로 바뀌면서 하드웨어 업체의 시장 공략 방식도 변하고 있다. 성능 못지않게 관리에 초점을 두고 컨설팅에서 시스템 구축·사후관리 등 종합 사무 솔루션 업체로 탈바꿈하고 있다. 한국HP는 프린터·복합기에서 디지털 인쇄 장비까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무기로 컨설팅을 통해 각 기업에 최적화된 프린팅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프린팅관리(TPM)’ 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 렉스마크코리아도 ‘전사적프린터관리시스템’ 도입을 역설하며 금융권을 겨냥한 대규모 세미나를 열고 있다.

신도리코와 캐논코리아는 아예 최적화된 사무환경 구현을 위한 ‘종합 오피스 솔루션 기업’을 표방한 상태로, 후지제록스도 비용에 초점을 맞춘 기업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탑재를 지원하는 디지털 복합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제록스 오피스 서비스(XOS)’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권승 한국HP 상무는 “국내 출력 시장은 인쇄물까지 포함해 연간 2조원에 달한다”며 “출력량이 많은 금융권을 중심으로 빠른 지각 변동이 일어나 앞으로 솔루션과 결합한 통합 관리 프로젝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휴대폰 부품업계 ‘원가절감’ 무한경쟁에 돌입**  
휴대폰 부품업계가 원가절감을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고객의 시선을 끄는 휴대폰의 경쟁력은 높은 성능에서 시작돼 얇은 두께로 넘어왔다. 최근 나오는 어지간한 휴대폰은 초슬림 제품이면서 기능에서도 손색이 없다. 이 상황에서 휴대폰 업계의 실적이 담보 상태를 보이면서 원가절감이 가장 큰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부품업체들은 갖가지 방안을 동원해 원가절감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삼성전기는 디지털 자동초점 카메라모듈을 개발중이다. 이 제품은 물리적으로 작

동하는 액추에이터 대신 소프트웨어로 자동초점을 맞추는데 20% 내외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삼성전기는 이와 함께 액체 휴대폰 안테나도 개발하기 시작했다. 엔피온은 플라스틱을 소재로 초박형 키패드를 개발했는데 금속 키패드에 비해 가격이 30% 이상 저렴하다. 이 제품은 또 두께가 0.12mm밖에 안 되며 무게도 금속 제품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삼화전기는 일반적인 액체 전해액 대신에 전기 전도성이 좋은 고체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 콘덴서 용량을 80% 정도 높였다. 이 제품은 1개로 일반 전해콘덴서 3~4개의 효과를 낼 수 있어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소재나 장비를 자체 충당해 비용을 줄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삼성전기는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제조 장비를 직접 개발, 세계에서 가장 작으면서도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가로 0.4mm, 세로 0.2mm 크기의 MLCC를 완성했다. 삼성전기는 작년 기준으로 1000억 원 정도의 장비를 샀는데 이 가운데 70% 이상을 수입으로 충당했다. 삼성전기는 MLCC 장비 외에 자체 제작 장비를 인쇄회로기판(PCB)과 카메라모듈 등 8대 핵심 제품 전체로 확대, 비용절감을 도모할 방침이다. 하이셀은 0.1μm 수준의 초정밀 가공 기술을 이용한 번에 16개의 휴대폰 카메라모듈용 렌즈를 찍어낼 수 있는 금형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8개가 최고 수준이었다. 하이셀은 렌즈 금형 개발로 원가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개발, 렌즈 사업에 직접 나서고 있다. 아이에스하이텍도 두께 0.3mm인 도광판을 자체 개발하고 0.65mm 두께의 휴대폰용 BLU를 출시할 계획이다. 도광판은 BLU에 반드시 들어가는 필름인데 아이에스하이텍은 이 소재를 자체 생산,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카메라모듈 업계 “수요를 창출하라”**  
카메라모듈 업계가 휴대폰 일변도에서 탈피해 다양한 수요처 발굴에 나섰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엠씨넥스와 디오스텍, 코렌과 같은 휴대폰용 카메라모듈 관련

업체들은 자동차, 보안장비, 의료장비 등에 들어가는 제품을 개발, 신규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이처럼 카메라모듈 업계가 휴대폰 이외에 다른 수요처를 찾는 이유는 사업 다각화로 위험을 분산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카메라모듈 업계는 카메라폰 시장의 확대로 크게 성장했지만 국내 휴대폰 업체의 실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한계를 보여왔다.

엠씨넥스는 빛이 없는 환경에서도 사물을 촬영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모듈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가로 및 세로가 6.5mm, 두께가 3.4mm에 불과한 초소형 카메라모듈로 자동차 전후방 카메라, 보안용 CCTV, 군사 장비 등에 적용 가능하다. 엠씨넥스는 이 제품으로 산업기술시험원이 주관하는 ‘KAS 공인 V체크마크’ 인증을 획득, 안전성과 신뢰성, 환경친화성을 검증받았다.

디오스텍은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용 렌즈 시장에 진출했다. 엑스레이 장비는 현재 대부분 아날로그 필름을 쓰고 있는데 서서히 디지털 장비로 교체되는 추세다.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용 렌즈는 보통 수백만원에 호가하며 모듈 형태인 경우 1000만 원을 상회한다. 디오스텍은 최근 이 제품의 양산에 들어갔으며 차량용 후방 감시 장비와 블루투스 제품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 올해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신규 사업에서 낼 방침이다.

코렌은 지문인식 광학 모듈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 회사는 국내 4개 지문인식 솔루션 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고 지문인식 광학 모듈 양산에 들어갔다. 이중진 코렌 사장은 “주로 지문인식 도어록 등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연말까지 5만 개 생산을 목표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또 백라이트유닛용 확산 렌즈와 바코드용 렌즈 등도 개발 중이다.